

완도 연안 해역 항해 위해 요소 분석

정초영* · 유상록**

* 군산대학교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 ** 해양경찰청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

Analysis on the navigation risk factors in Wando coastal area

Cho-Young Jung* · Sang-Lok Yoo**

* Division of Marine Industry - Transport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54150, Korea

** Wando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Korea Coast Guard, Wando 59126, Korea

핵심용어 : 해상교통관제센터, 완도VTS, 군집분석, 표층수온, 장기변동

Key Words : East Sea, Coastal oceanographic observation, Cluster analysis, Sea surface temperature, Long-term variability

1. 개요 및 연구목적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2004년에 개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중략)

기존 관제구역은 여수~완도~목포VTS 센터 사이에 관제 단절구간이 있어서 선박운항자에게 있어서 일관된 관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는데, 올해 5월 17일부터 공백 구간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관제구역이 당초 525km²에서 840km²가 확대되어 총 1,365km² 해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선박 운항자가 만족할 수 있는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관제구역인 완도·청산도 남방해역의 항해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해역은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관제구역인 840km²의 해역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 사고위치정보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확대 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를 조사 분석하였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IS라 한다)와 V-PASS(Vessel pass)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위치정보를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교통관련 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충돌사고로 조사되었다. 상선과 어선간의 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선과 중국어선이 4건, 상선과 상선이 1건, 어선과 어선이 1건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측의 금어기 기간에 북한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선박과의 사고가 이 해역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선박 종류별로는 일반화물선이 11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어선이 9척, 중국어선이 4척, 위험화물 운반선이 2척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목포에서 제주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서측 관제구역 끝단에서 보길도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는 선박과 지속적으로 횡단관계로 조우하게 되어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관제구역의 항해 위해 요소를 분석한 결과, 관제구역 서측은 제주기항 선박과 동서진 선박과의 횡단 상태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관제구역 동측은 일본기항 선박 간의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를 주의 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First Author : wjdchdud@kunsan.ac.kr, 063-469-1815

† Corresponding Author : yoosangrok82@naver.com, 061-550-2550